



세종지역항센터 소식지

세종 '네' 컷

제8호 (2026년 06월)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컷〉 목차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다시 모인 천년의 마음, 백제대제
- 제19회 독락문화제, 신도심에서 만난 임난수의 혼
- 한글문화도시의 깊이를 더하는 ‘세종책사랑축제’
-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붓 끝에 담은 한글의 온기, 김순자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전통시장이 품은 삶의 이야기를 찾아서
- 세종학 여름 세미나 「로컬브랜딩으로 풀어낸 세종의 문화자산」
- 함께 그려가는 세종학의 미래, 세종학 운영위원회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 백련(白蓮) 너머의 시간, 영평사를 걷다
- 부강성당에 남겨진 세종의 시간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김해한글박물관, 한글을 지역의 이름으로 기억하다
- 한국지역학포럼, 세종의 로컬을 함께 이야기하다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다시 모인 천년의 마음, 백제대제
- 제19회 독락문화제, 신도심에서 만난 임난수의 혼
- 한글문화도시의 깊이를 더하는 ‘세종책사랑축제’
-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붓끝에 담은 한글의 온기,
김순자

세종지역학센터

다시 모인 천년의 마음, 백제대제

백제대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행사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매년 새롭게 다가온다. 백제의 기억과 불비상의 흔적을 가리는 이 자리는, 세종이 '새로운 도시'하기 전에 오래된 시간이 켜켜이 쌓인 장소였음을 보여준다. 신도심의 일상 속에서 백제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은 과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뿌리를 오늘의 시민과 나누는 과정이다.

앞으로 백제대제가 세종의 문화적 자산으로 더 깊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역사적 의미를 쉽게 풀어내고, 시민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마다 다시 모이는 이 시간이 세종의 뿌리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는 자리로 오래 이야기를 기대한다.



제19회 독락문화제, 신도심에서 만난 임난수의 혼

4월 22일 오전, 나성동 독락정역사공원에는 봄기운 사이로 북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였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독락문화제는 임난수 장군 탄신 684주년을 기념해 ‘고려의 혼, 다시 깨어나다’를 주제로 열렸다. 길놀이와 판굿, 한다례, 시낭송과 축하공연이 이어지며, 행사는 장군의 충절을 가리는 자리아자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의장으로 펼쳐졌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이 오래된 이야기가 신도심 한가운데에서 다시 불려나왔다는 점이다. 독락정과 임난수 은행나무가 자리한 풍경은 세종이 단지 새롭게 만들어진 도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일깨운다. 이번 독락문화제는 과거를 기념하는 행사를 넘어, 세종의 오래된 시간과 오늘의 시민이 만나는 자리였다.

해마다 이어지는 이 시간이 세종의 역사인물을 시민의 일상 속에서 다시 기억하는 문화적 장면으로 깊어진다면, 세종은 새로움과 오래된 시간이 함께 숨쉬는 도시로 조금 더 완성되어 가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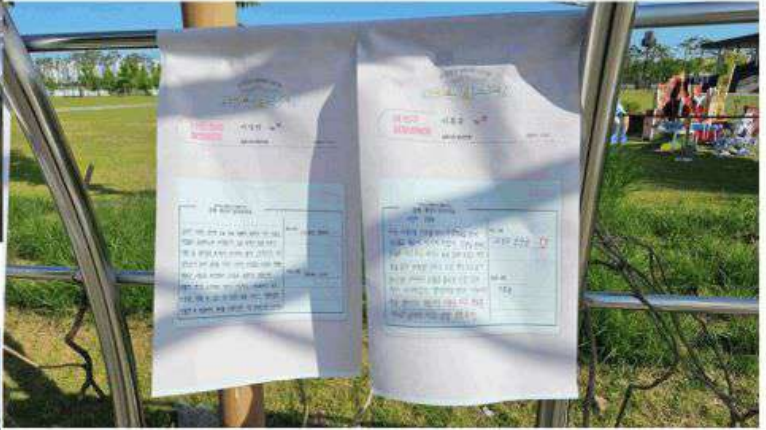
한글문화도시의 깊이를 더하는 ‘세종 책사랑 축제’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세종중앙공원에서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날을 기념하는 세종 책사랑 축제가 열렸다. 이번 축제는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과 한글,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문화축제로 마련됐다. 전국 30여개 독립서점이 참여한 북페어를 비롯해 북콘서트, 강연, 북바인딩 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한글과 책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시간을 만들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최초의 한글 금속 활자본인 월인천강자곡을 중심으로 전시와 체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서명운동을 함께 구성하며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시민이 직접 경험하도록 했다.

세종은 도시의 이름부터 세종대왕을 품고 있는 도시이다. 한글문화도시를 만들어간다는 것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한글을 배우고 즐기며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세종 책사랑 축제가 해마다 시민의 참여 속에서 세종이라는 도시의 문화적 풍경을 넓혀간다면, 세종만의 정체성도 더욱 깊어질 것이다.



(생생현장) '세종 책사랑 축제' 이모저모



[지역학센터가 만난 예술가] 붓 끝에 담은 한글의 온기, 김순자

세종한글멋글씨협회장 김순자작가는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캘리그래피이자 한글디자이너이다. '청보리'라는 호처럼 바람에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온 그는 한글멋글씨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다양한 작업을 펼쳐오고 있다. 무엇보다 "글의 의미를 마음에 담고 자신의 호흡으로 써 내려가는 진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는 세종시지역화페 '여민전'의 글씨를 썼으며, 올해 6월에는 세종시장군면에 위치한 '갤러리힐'에서 '이해인 수녀의 글과 함께하는 멋글씨전 '모든 순간이다 꽃으로 필 거예요''를 개최하는 등 한글을 시민과 만나는 예술로 풀어내고 있다.

한편 그는 지역 문화예술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진작가뿐 아니라 꾸준히 활동해 온 중견작가들에게도 다양한 기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다. 공모사업의 높은 문턱과 짧은 준비기간은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데 아쉬움으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한글문화도시 세종에서 예술가들의 경험과 새로운 시도가 함께 어우러질 때, 한글문화역시 시민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김순자캘리디자인연구소(세종 한누리대로 227 세종마루 206호)



(생생현장) 「이해인 수녀의 글과 함께하는 멋글씨전」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총서 현장조사 진행
- 세종학 여름 세미나
「로컬브랜딩으로 풀어낸 세종의 문화자산」
- 함께 그려가는 세종학의 미래, 세종학 운영위원회

세종지역학센터

전통시장이 품은 삶의 이야기를 찾아서

세종지역학센터는 기획총서제4권(통권제5권) 『삶이 오가는 길목, 세종의 시장』 발간을 위해 세종전통시장과 세종대평시장, 전의왕의물시장, 부강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시장의 역사와 공간뿐 아니라 상인과 주민들의 구술, 장날의 풍경, 시장을 둘러싼 생활문화를 함께 기록해 세종전통시장의 장소성과 지역의 기억을 담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계획도시 세종에도 오래된 장터의 시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시장의 풍경과 사람들의 기억을 기록하는 일은 사라져가는 일상을 보존하는 동시에, 세종의 지역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번 총서가 세종의 오래된 이야기를 시민들에게 전하는 기록으로 이어지를 기대한다.



세종학 여름 세미나 「로컬브랜딩으로 풀어낸 세종의 문화자산」

세종지역학센터는 6월 5일 디자인스튜디오 라리와 지역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학 연구와 로컬브랜딩을 연계하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6월 25일에는 세종 한글문화도시센터 한글상점에서 여름 세미나 「로컬브랜딩으로 풀어낸 세종의 문화자산」을 공동으로 개최해 시민과 지역 예술가, 로컬 크리에이터 등 50여명이 함께 세종의 문화자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미나에서는 조차원의 오래된 간판 글씨를 수집 및 디지털 폰트로 변형, 굿즈 등으로 확산한 '조차원 리스펙트', 세종의 읍·면·동을 한글 디자인으로 재해석한 '시읍사이' 프로젝트 등 지역의 이야기를 콘텐츠로 확산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도영 작가(시각예술인, '한글 품은 한옥' 작가), 송주철 소장(송주철 공공디자인연구소), 안성희 교수(홍익대학교 디자인컨버전스학부), 이자은 책임연구위원(세종연구원)과 함께 지역의 기억을 꾸준히 기록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과정이 지속가능한 로컬브랜딩의 기반이라는 점을 함께 논의했다.



세종학 여름 세미나 「로컬브랜딩으로 풀어낸 세종의 문화자산」

지역학은 지역을 기록하고, 디자인은 그 이야기를 시민의 일상으로 연결한다. 이번 업무협약 및 세미나 공동 개최는 세종의 문화자산을 시민과 함께 향유하는 콘텐츠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앞으로도 지역학과 문화예술이 만나 세종만의 이야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기를 기대해 본다.



함께 그려가는 세종학의 미래, 세종학 운영위원회

6월 26일 세종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6 세종학 운영위원회가 열렸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세종지역학센터의 활동을 공유하고, 세종학 총서연구총서제1권(통권제4권) 『세종을 짓는 지역학』 원고검토와 함께 하반기 세종학포럼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종학이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연구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고 지역의 문화자산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모였다. 세종지역학은 연구센터 내에서만 완성되는 학문이 아니라, 전문가 및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의 기록이다. 이번 운영위원회는 세종의 역사와 문화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세종학의 방향을 함께 그려본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 백련 너머의 시간, 영평사를 걷다
- 부강성당에 남겨진 세종의 시간

세종지역학센터

백련(白蓮) 너머의 시간, 영평사를 걷다

영평사는 세종시장군면장군산자락에 자리한 대한민국 전통 사찰 제78호이다. 계절마다 다양한 꽃이 피어나는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특히 여름인 이맘때면 백련(白蓮)이 장관을 이루어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오랜 수행과 지역의 역사가 함께 쌓여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테마의 템플스테이와 해마다 열리는 낙화전통문화축제는 영평사를 단순한 사찰이 아니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자연과 문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왔다.

세종은 장군산과 영평사처럼 오랜 역사와 문화가 이어져 온 공간도 함께 품고 있는 도시다. 이러한 장소를 기록하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일은 지역 정체성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과정이기도 하다.

※ 영평사 (세종 장군면 영평사길 124)



부강성당에 남겨진 세종의 시간

세종시 부강면에 위치한 부강성당은 한옥성당과 현대식 성당이 함께 남아있는 구조로 2020년 국가등록문화재 제784호로 지정됐다. 1934년에 지어진 한옥성당과 1962년 건립된 본당이 공존하고 있어 충북지역 천주교 성당의 변천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으며, 서양식 교회 건축양식과 한옥이 어우러진 독특한 건축적 특징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부강성당은 한국전쟁 이후 부강지역의 선교활동의 역사를 함께 품고 있으며, 오랜 시간 주민들의 삶과 함께해 온 공간으로서 지역사적 의미 또한 지니고 있다.

계획도시 세종에도 근대 역사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있다. 부강성당은 도시의 역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지역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다.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김해한글박물관, 한글을 지역의 이름으로 기억하다
- 한국지역학포럼, 세종의 로컬을 함께 이야기하다

세종지역학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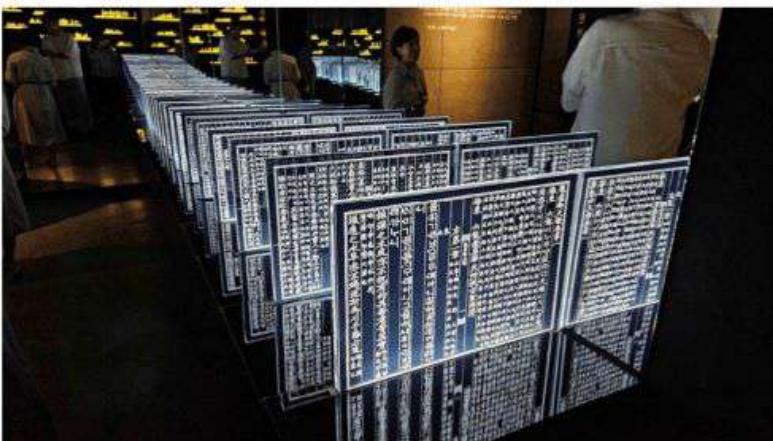
김해한글박물관, 한글을 지역의 이름으로 기억하다

김해한글박물관은 한글의 역사와 문화를 다루면서도, 그 이야기를 김해라는 지역의 인물과 연결해 풀어낸 공간이다.

2021년 11월 문을 연 이 박물관은 김해 출신 한글학자인 이윤재 선생과 허웅 선생의 업적을 조명하고, 한글 창제 이후의 한글문화와 역사를 함께 살펴보는 장소로 소개되고 있다.

전사를 따라가다 보면 한글은 단지 문자 체계가 아니라, 한 시대의 지식과 실천, 그리고 지역 인물이 남긴 학문적 흔적으로 다가온다. 김해는 한글 그 자체의 '발상지'는 아니지만, 한글을 연구하고 지켜낸 인물을 통해 도시의 문화적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이 점은 세종에도 중요한 참고가 된다.

세종이 한글문화도시를 이야기 할 때 필요한 것은 '세종대왕'이라는 이름만 반복하는 일이다. 한글을 오늘의 시민이 어떻게 만나고, 배우고, 사용하고, 기억할 수 있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김해한글박물관은 지역 인물과 한글의 관계를 전사로 풀어낸 사례로서, 세종이 한글을 지역의 문화자산으로 설계할 때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는 공간이었다.



(생생현장) 김해한글박물관 전시 관람



한국지역학포럼, 세종의 로컬을 함께 이야기하다

제17회강원학포럼이자제25차한국지역학포럼이 6월 18일부터 19일까지강원도자이언진흥원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로컬의 힘, 지속가능한 내일과 지역학’으로, 역사와 아카이빙, 축제, 콘텐츠,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지역학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였다.

세종지역학센터는 제부에서 ‘세종시, 로컬을 꿈꿀 수 있을까?: 조치원 공간재생과 청년 로컬콘텐츠 주체의 등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치원 공간재생의 흐름과 청년 로컬콘텐츠 주체의 등장을 함께 짚으며, 계획도시 세종 안에서 ‘로컬’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질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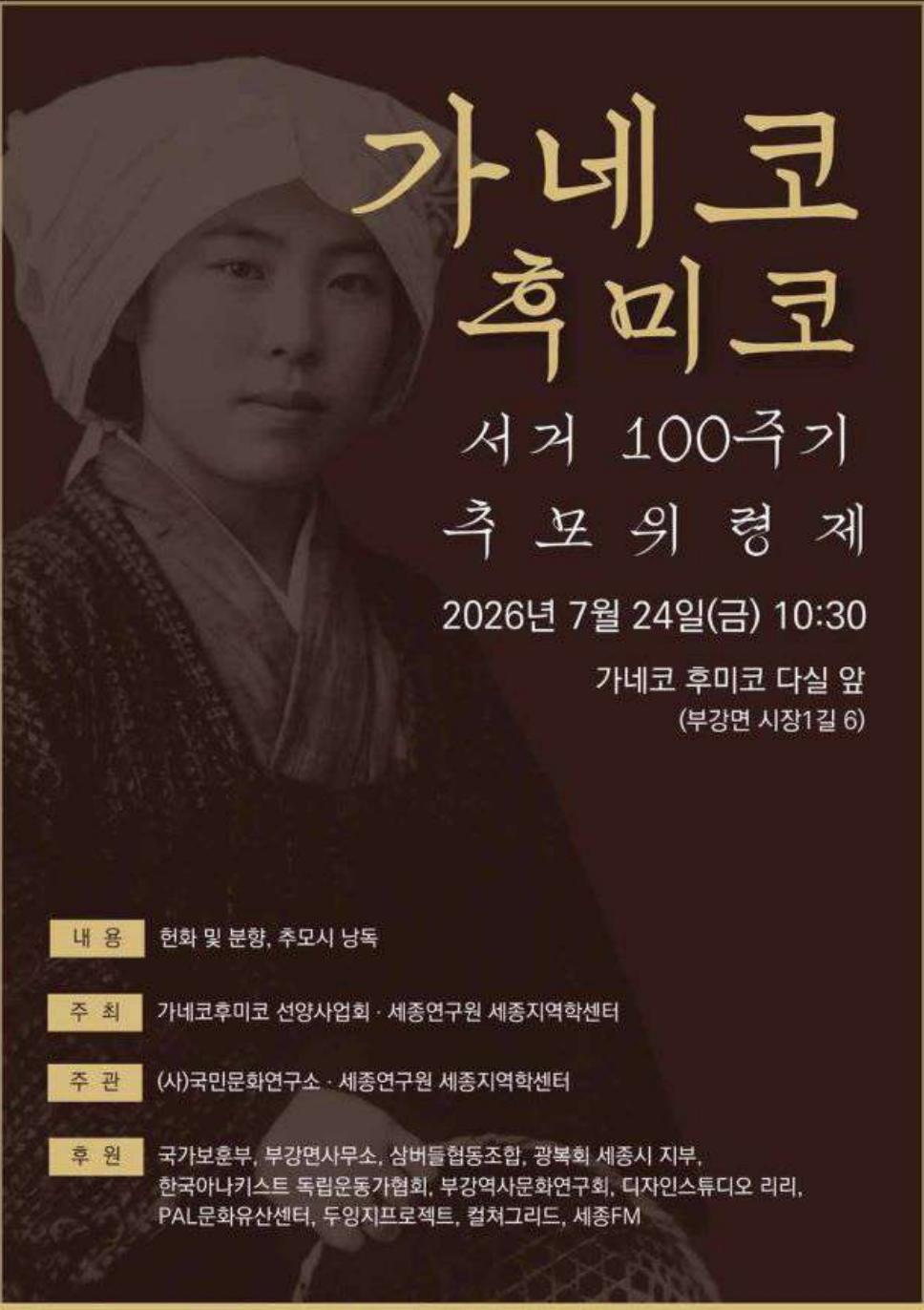
포럼에서는 제주학 아카이브, 전북 지역축제, 행정통합과 지역정체성, 강원 역사문화지원 등 다양한 지역의 사례가 함께 논의됐다. 서로 다른 지역의 고민은 달랐지만, 지역의 기억을 어떻게 기록하고, 시민의 삶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닮아 있었다. 이번 한국지역학포럼은 세종의 사례를 바깥에 전하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의 경험을 통해 세종지역학의 다음 과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생생현장) 한국지역학포럼 '김유정문학촌' 답사



(세종학 팝업 세미나) 가네코 후미코 추모 위령제



가네코 후미코
서거 100주기
추모 위령제

2026년 7월 24일(금) 10:30
가네코 후미코 다실 앞
(부강면 시장1길 6)

내 용 헌화 및 분향, 추모시 낭독

주 최 가네코후미코 선양사업회 ·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주 관 (사)국민문화연구소 ·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후 원 국가보훈부, 부강면사무소, 삼버들협동조합, 광복회 세종시 지부, 한국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협회, 부강역사문화연구회, 디자인스튜디오 리리, PAL문화유산센터, 두잉지프로젝트, 컬처그리드, 세종FM

초 대 합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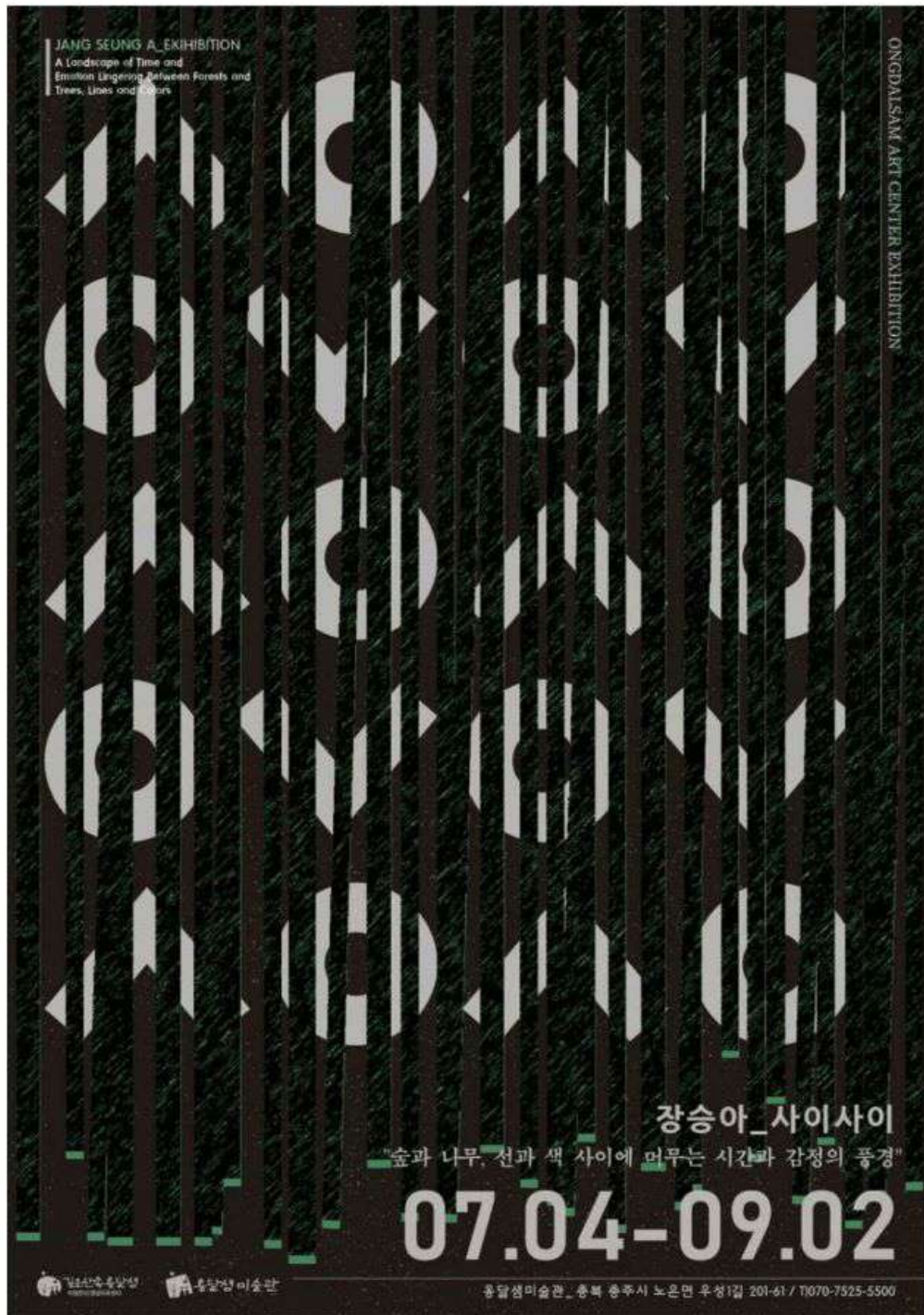
2026년, 가네코후미코 서거 100주기를 맞아 그의 높은 뜻을 기리고,

그가 부강에서 보낸 유년 시절의 의미를 담아 정중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추모 위령제를 진행합니다.

(일시) 2026년 7월 24일(금) 10:30

(장소) 부강면 가네코 후미코 다실 앞 특설무대(세종 부강면 시장1길 6 1층 가네코후미코 다실)

(전시소개) 장승아 개인전 《사이사이》



장승아_사이사이

숲과 나무, 선과 색 사이에 머무는 시간과 감정의 풍경

(일시) 2026년 7월 4일(토) ~ 9월 2일(수)

(장소) 충주 깊은산속옹달샘 옹달샘미술관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 컷>

제8호 (2026년 6월)

발행인 : 권영걸 원장(세종연구원)

기획 : 이재민 센터장(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이자은 연구위원(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혜원 위촉연구원(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원고 작성 : 이재민 센터장(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이혜원 위촉연구원(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사진 촬영 및 편집 : 이재민 센터장(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세종지역학센터)

이혜원 위촉연구원(세종지역학센터 위촉연구원)

발행일 : 2026년 6월 30일

세종지역학센터